

뉴저지장로교회
김도완 목사
설교 시리즈 6

희망 없는 이들의 희망

룻기



목차

- 나오미, 모든 것을 잃은 성도의 희망 ■ 3
/ 마태복음 5:13-16
- 룻, 신실함을 향한 발돋움 ■ 9
/ 마태복음 5:17-20
- 보아스, 은혜와 자비의 의인 ■ 15
/ 마태복음 5:21-26
- 그리스도, 기업을 무르시는 은혜 ■ 21
/ 마태복음 5:27-32

Naomi

나오미, 모든 것을 잃은 성도의 희망



룻기 1:1-22



모든 것을 다 잃은 성도에게 남은 것이 있는가?

총 네 장인 룻기의 네 명의 주인공들을 한 장에 한 명씩 골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인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성도의 모델입니다. 그녀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모압땅의 10년 동안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녀가 빈손으로 고향땅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1:20-21입니다.

(룻 1:20-21)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기쁨)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고통)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나오미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룻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외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존귀함이 남아 있다

첫째, 우리에게는 성도의 존귀함이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존귀한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녀는 고결한 성품을 통해 보여 주었습니다. 본문의 7절 이하를 보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를 따라나선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여 행복을 찾으라고 합니다. 며느리들이 그녀를 떠나려하지 않자 재차 삼차 강권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도 자신의 안위보다 며느리들의 행복을 더 원합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이것은 고결한 성품이고 그녀가 가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청년 요셉 역시 동일한 고결함을 보여줍니다. 여느 청년 같았으면 형들을 저주하며 운명을 한탄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던져버렸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가 되어서도

주인 보디발에게 가정 총무로 발탁될 만큼 충성과 진실을 잃지 않았습
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도 쾌락과 죄악에 자신을 던져
버리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성도의 고
결함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무엇입니
까? 뵤전 2:9을 보십시오.

(뵤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은 왕과 같습니다. 왕도 전쟁에서 질 수 있지만 질병들처
럼 비굴하게 목숨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
고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고결함을 잃지 않
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풍요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빼
앗지 못 합니다.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삶을 향한 열
정은 빼앗지 못 합니다. 실패가 우리의 현재를 앗아갈 수는 있지만 주님
이 약속하신 미래는 결코 빼앗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
러분, 어떤 고난도 여러분의 존귀함과 고결함을 빼앗도록 내버려두지 마
십시오. 고난 중에도 왕과 같은 의연함과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
합니다.

희망이 남아 있다

둘째 우리에게서 희망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희
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며느리 룯이었습니다. 도대체 룯이 어떻게 희망
이 됩니까? 고대 사회의 약자의 3조건인 여자에 미망인에 외국인이었던
며느리 룯은 남편이나 아들과 든든함에 있어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보
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룯의 가치를 몰랐고 자신에게
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룯기는 바로 그보잘 것 없는 존재
룯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인생 역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
니다. 4장을 보면 바로 룯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헬에서 잃었던 땅을

되찾고, 자신을 봉양하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손자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의 불행을 보고 탄식했던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제 그녀의 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4:14-15을 보십시오.

(룻 4:14-15)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
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
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은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나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종종 너무나 보잘 것 없어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그것들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의 아들을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흥분한 이새는 그의 뛰어난 아들 일곱을 자랑스레 보여주면서도 막내인 여덟째 양치기 아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보잘 것 없는 아이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그 아버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바로 그 꼬마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는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룻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양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성공을 위해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부모나 뛰어난 두뇌나 탁월한 재능을 부러워합니다. 반면 자신이 가진 것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합니다. 작은 아이디어, 평범한 기술, 조그마한 용기, 겨자씨만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신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장차 왕이 될 꼬마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큰 것은 작은 것들을 갖고 닦은 것임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남은 젊음, 남은 시간, 남은 체력, 남은 기회, 남은 사람, 남은 용기, 남은 믿음, 남은 사랑, 남은 소망에 주목하십시오.

〈굳은 손가락으로 쓰다〉라는 책의 저자 이원규 씨는 한국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9년 40세의 나이로 전신의 근육이 돌처럼 굳는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였지만 건강도 직업도 잃은 그는 마침내 손가락과 발가락을 빼고는 온 몸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때 그는 그나마 조금 움직일 수 있었던 손가락 하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남은 손가락의 힘으로 타자를 치고 발가락으로 책장을 넘겨가며 공부해 200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현대문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한 그 희망을 향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명이 있는 한 고통 또한 있다. 이 땅의 모든 고통 받는 분들께 ‘강철 무지개’를 하나씩 선물하고 싶다.”

그는 스티븐 호킹처럼 강단에 서는 꿈을 위하여 오늘도 그에게 남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계신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아계십니다.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남아계셨습니다. 2:3-4절을 보십시오.

(룻 2:3-4) 3 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며느리 룯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우연히도’ 나오미의 재산을 되찾아줄 의무와 권리를 가진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보아스도 ‘마침’ 그 때 추수를 지휘하러 나왔다가 룯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우연에서부터 나오미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말

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시 27:10을 보십시오.

(시 27:10)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나의 힘이자, 용기이자, 희망입니다.(표준새번역)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남아계십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가라앉는 우리 인생의 배에서 모두가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구조하시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존귀함과 희망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Ruth

룻, 신실함을 향한 발돋움



룻기 2:1-23



신실한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론’의 저자 새뮤얼 스마일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은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인격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격이다...” 진정한 성공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인격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인격의 기초를 닦지 못 하여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성공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배우자의 선택조건 1위를 20-30대와 50-60대에게 물었습니다. 당사자들인 20-30대는 경제력이 첫째 조건이었지만 직접 긴 결혼생활을 해보고 자녀들을 보내야하는 부모들은 인간성을 첫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결혼생

활에서도 살아보니 역시 인격이 돈보다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 이어 2장에서는 룯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룯은 한국농촌에 시집왔다가 홀로 된 동남아 며느리 정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통해 그녀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가난한 여자에 미망인에 외국인이라는 그녀의 모든 약점을 거뜰히 극복하게 만든 그녀의 인격입니다. 2,000년 전 선민의식에 젖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 출신 미망인이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이 오늘날 동남아 신부들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겠습니까? 그러나 룯은 자신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과 차별과 절망을 뚫고 인생의 성공을 쟁취하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성공 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일곱 아들이 다 나은’ 며느리라는 칭송을 받았고,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될 뿐 아니라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영적 성공과 세사적 성공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재능이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의 진실한 인격이었습니다! 그 진실한 인격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진실한 인격의 첫째 요소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3:10을 보십시오.

(룯 3:10) 그(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읽는데 ‘어진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란 의미입니다. 룯의 인애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고향 모압을 떠나 나오미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그녀가 살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16-17절을 보십시오.

(룻 1:16-17)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길지 않은 말속에 무려 8번이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룻 12:16-19과 비교해 보십시오.

(룻 12:16-19)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어머니와 어머니의 연속, 나와 나의 연속.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대조가 아닙니까? 그녀의 이런 사랑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2:2을 보면, 그녀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추수 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고된 일을 기꺼이 하러 나갑니다. 3:10을 보면 그녀는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늙은 보아스와 기꺼이 결혼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를 가리켜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사랑이 그녀의 생각과 태도와 의지 속에 배어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간사랑은 한결같다는 점에서 감상적이고 즉흥적인 동정과 달랐습니다. 인간 사랑이야말로 신실한 인격의 특징입니다.

삶을 향한 사랑

신실한 인격의 두 번째 요소는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는 아무리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2:2을 보십시오.

(룻 2: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룻은 삶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살 길을 모색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이삭을 주워요? 나더러 거지들 사이에 끼어서 이삭을 주우라고요?' 그녀의 성실함을 보십시오. 2:7을 보십시오.

(룻 2: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감시를 합니까? TV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고 있고 사람들이 그녀의 주운 이삭의 양을 보고 박수를 칩니까? 그녀가 성실하게 안 하면 탓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녀의 일이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그녀는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너무 보잘 것 없는 일이라서, 인정을 안 해줘서, 비전이 안 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돈을 주며 더 인정해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일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인격론'의 첫 장 '노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인 인격수양에 있어 일은 최고의 스승이다. 일은 복종심, 자제력, 주의력, 인내심을 키우고 단련시킨다...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는 노동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는 자신의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이 풍요롭든 고단하든 비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삶을 개척합니다. 일에 대한 충성은 삶에 대한 열정의 증거이고 이는 신실한 인격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실한 인격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1:16-17을 다시 보십시오.

(룻 1:16-17) 16 룯이 이르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 나이다’ 하는지라

그녀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명백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 자신의 미래를 건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선택에 대해 보아스는 2:1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 2: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 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축복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증거는 그녀의 신실한 자기관리 즉 절제입니다. 3:11을 보십시오.

(룻 3: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음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녀는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절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인격론’의 ‘절제’라는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는 또 다른 형태의 용기이다. 절제는 인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절제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이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뿌리이다. 충동과 격정에 통제력을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정신적 자유를 상실한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게 되고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한 욕망의 노예가 된다’

믿음의 뿌리에서 절제의 나무가 자라고 절제의 나무에서 신실한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인격을 구하라.

룻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외국여인이었을 뿐이지만 그녀는 신실한 인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10-11을 보면 룻에 관해 소문이 났습니다. 인격에 관한 놀라운 진실 한 가지는 그것이 아름답든 천박하든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의 신실함은 보아스의 친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이삭을 주을 수 있도록 돕고 배부른 식사를 제공하고 그녀를 보호합니다. 결정적으로 룻의 신실함 때문에 보아스는 잊고 있었던 의무를 행합니다. 즉 나오미 집안의 잃은 땅을 다시 사주는 '기업 무르기'의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인격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격은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 동료와 교우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미움과 낙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 은혜와 자비의 의인



룻기 3:1-18



선진사회일수록 약자를 보호한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자서전을 쓴 레나 마리아라는 이름의 스웨덴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양쪽 팔과 왼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 오른쪽 다리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20대에 인도로 선교여행을 떠나 엄청난 불편에 직면하기까지 자신이 장애인이란 사실을 거의 의식조차 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고향 스웨덴에서는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장애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웨덴이 왜 선진사회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선진사회일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가 큼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도 비장애인들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많은 배려를 합니다. 후진사회일수록 이런 배려가 없어서 장애인, 빈자, 여성,

아이들 그리고 소수자들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의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교하고 사려깊은 배려 시스템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레위기 19:9-10을 보십시오.

(레 19:9) 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4을 보십시오.

(룻 2: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힘없는 일꾼들에게도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룻의 사정을 듣고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8-9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룻 2:8-9) 8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 2: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약자를 보호하려면 사려 깊어야 한다

약자 보호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사려 깊음입니다. 이삭을 주움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방법은 대단히 사려 깊게 고안된 제도입니다. 베푸는 자와 베풀을 받는 자들이 마주 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즉 베푸는 자의 교만과 받는 자의 수치심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베푸는 이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할 기회를 갖지 않음으로써 선한 의도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받는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삭을 줍는 노동’을 해서 수입을 얻게 됨으로 자신들의 존엄을 잃지 않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제도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2:15-16을 보십시오.

(룻 2:15)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줍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는 룻을 불러다가 한 묶음의 곡식단을 쥐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친절을 몰래 베풀도록 합니다. 왜입니까?

첫째는 룻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돕는 일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룻은 땀 흘려 이삭을 주움으로써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룻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이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곧 베푸는 자를 교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보아스는 룻과 자신 모두를 위해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사려 깊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12-14절을 보면 보아스는 룯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들어와 이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선부르게 그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나 룯이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도록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무를 권리가 있는 이로부터 그 권리를 넘겨받은 후에야 정식으로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들로 넘쳐나는 오늘날의 세태와 얼마나 대조적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이런 사려 깊음이 필요합니다. 동남아의 쓰나미나 하이티의 해일로 엄청난 인명이 안타까이 목숨을 잃었을 때 어떤 목회자들은 그 희생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방송에 다 대고 주장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무례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이 모두 용맹스럽게 죽습니까? 도망가다 죽은 군인도 있고 명령에 불복하다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사를 부모에 통지할 때는 예외 없이 조국과 동료들을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자를 보호하려면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약자 보호를 배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자의 희생입니다. 기업 무르기는 친척의 자발적인 희생이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4:1에 등장하는 한 친척은 이 의무를 거부하고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결국 보아스가 이 의무를 떠맡습니다. 보아스는 큰 희생을 감당하며 나오미와 룯을 도운 것입니다. 희생 없이 약자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선한 도움은 항상 우리의 시간과 돈과 관심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보아스의 이름은 알지만 그 친척의 이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친척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은 주님에게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심지어 3천 년 후 지중해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사는 우리도 아는데 주님이 그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롭게 빛나는 이름은 부자도 권력자도 인기인도 아니라 약자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단 12:3입니다.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천국에서 빛날 이름, 성산 장기려 박사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날 이름 하나를 소개합니다. 10여 년 전 타계한, 한국의 슈바이처, 빈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청년 장기려는 경성의전(京城醫專) 시험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게 해주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가 세운 부산복음병원은 늘 전국에서 몰려든 가난한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특하면 돈이 없으니 병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사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장기려 박사는 있는 돈만 내고 가라고 환자들을 위로하고는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들의 손에 쥐어 주어 보내곤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무과장은 병원 재정을 위해 퇴원환자를 원장이 혼자 못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환자들을 원장을 자꾸만 찾아왔고 마음이 아팠던 장기려 박사는 환자들을 밤에 뒷문으로 몰래 도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병원 원장으로 60년을 근무했지만 흔한 서민아파트 한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려 깊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였던 정원석 박사가 수술을 위해 장기려 박사를 모시러 갔더니 그가 수술교본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외과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교

본을 보고 있다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실력이 없다고 오해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 인턴들이나 보는 수술책을 왜 교수님이 보고 계십니까?” 장기려 박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다시 보는 게 좋아요. 모름지기 의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 정원석 박사는 자신의 오만을 깨우치고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려 깊음과 희생적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를 천국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과 닮아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는 이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사려 깊게 행동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약자를 보호하는 보아스와 장기려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보아স্য 장기려가 아십니까?

Christ

그리스도, 기업을 무르시는 은혜



룻기 4:1-22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



‘미션 바라바’라는 재미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 표지에는 웃통을 벗은 중년의 남자 8명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들은 가슴과 등에 승천하는 용의 문신이 무시무시하게 그려져 있고 다들 손가락 한두 개 씩은 잘려나가고 없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그들은 모두 야쿠자(조직폭력배)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서운 문신과 달리 환한 웃음을 만면에 띤 그들의 신분은 모두 야쿠자가 아니라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

고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중 한 명인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를 소개합니다. 오사카에 살던 스즈키 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큰 빚을 지고 동료 야쿠자들의 살해위협을 피해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동경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그는 한국인 아내 한금자 씨가 믿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신주쿠의 동경순복음교회를 찾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꼬박 4일 밤낮을 의자 밑에 자며 회개와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마음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집을 나간 후 날마다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맞아준 아내의 인도로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아내의 소원대로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목사가 되어 실로암 교회를 개척한 그는 야쿠자였다가 회심한 목회자와 기독교인들과 함께 ‘미션바라바’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나 목숨을 건진 강도 바라바처럼 자신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신들처럼 타락한 인생들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미션바라바의 기독교인들은 1992년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일본 열도를 종단하며 거리전도를 하는 ‘일본 부흥 십자가 행진’을 하고 다음 해에는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역시 나무 십자가를 메고 한국을 종단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아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스즈키 씨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사람이 된 야쿠자들의 이야기가 빼곡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인생역전과 영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4장은 롯기 설교의 네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주인공에 대해 살펴봅니다. 롯기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 나오미와 롯 그리고 보아스 세 사람이 전부인데 도대체 네 번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 분은 바로 드러나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나서면서 바라본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의 앞길을 열어 주기 위해 의지하였던 이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롯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그녀를 축복하며 바라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롯의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보아스를 자비로운 의인으로 만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제정해 두신 기업무르기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계명과 백성들의 순종과 오묘한 섭리를 통해 나오미와 롯과 보아스의 인생이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 선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보잘 것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방법으로 그리고 긴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역사의 커튼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롯기가 가리키는 예수님

하나님은 롯기의 주인공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 분이 누구이십니까? 4:21-22의 족보를 보십시오.

(룻 4:21-22) 21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의 족보는 위대한 다윗왕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의 시야는 훨씬 멀리에 닿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5)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주님이 그들을 통해 가리키고 있는 분은 1,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첫째, 룻처럼 인애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룻처럼 인애를 베푸시는 사역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보아스 모두에게 큰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 인애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갈 노파 나오미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았을 보아스가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애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애를 신약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십니다.

(눅 7: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마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치 식물이 햇살을 받아 사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인애를 받아 살아갑니다.

둘째, 나오미처럼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

둘째로 나오미처럼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에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역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이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베드로를 위대한 어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던 삭개오를 불러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의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하셔서 위대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역전시키십니다.

셋째, 보아스처럼 기업을 무르시는 예수님

셋째로 보아스처럼 기업을 물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그녀에게 돌려주고 룯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그 집안의 후손으로 족보에 올려주었습니다.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친족의 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그러한 희생으로 나오미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예수님은 되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 쫓겨난 에덴동산의 삶을 예수님은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역하여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기업 무름을 위해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5은 선포합니다.

(사 53: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는 나눔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오늘 우리가 야쿠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은혜를 누리므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분의 인애 없이 살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은혜 없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누구입니까? 그분의 기업 무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외한인
장로회 **뉴저지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New Jersey
담임목사 김도완

팰리세이즈파크

50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4-5756

오를랜드

222 Ramapo Valley Rd,
Oakland, NJ 07436
Tel. 201-337-1313

주일 장년예배

팰팩	1부 예배	7:00am
	2부 예배	8:30am
	3부 예배	10:00am
	4부 예배 (영상설교/찬양예배)	11:30am
	청년부 예배	2:00pm
오를	히스패닉 예배	4:00pm
	3부 예배 (영상설교)	10:00am
	4부 예배 (찬양예배)	11:30am
	영어부 예배 (EM)	11:00am

주일 교회학교 예배

팰팩	10:00am	유아,유치부(3-6세)	2교육관
		유초등부(1-5학년)	1교육관 1층
		중고등부(6-12학년)	1교육관 2층
오를	11:30am	영아부(1-3세)	2교육관
		영아부(1-3세)	영아부실
		유아부(3-4.5세)	유아부실
		유치부(4.5-6세)	유치부실
		유년부(1-3학년)	유년부실
		초등부(4-5학년)	초등부실
		중등부(6-8학년)	중등부실
고등부(9-12학년)	고등부실		

중고등부/대학부 금요모임

중고등부	팰팩 1교육관 2층	6:45pm
대학부	팰팩 1교육관 1층	7:30pm

주중 기도회

팰팩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수요 오전 기도회	10:30am
	수요 저녁 기도회	7:50pm
	금요 기도회	8:30pm
오를	중보기도 (월-주일)	7:00am
	새벽기도회 (월-금)	6:00am

부속 사역

버겐경로대학 (팰팩,토)	10:00am
팰팩한국학교 (팰팩,토)	9:30am
오를한국학교 (오를,주일)	2:00pm
Awana (오를,주일)	1:30pm
초등이 배움터 (팰팩,월-금)	3:00pm

김도완 목사 설교 방송

- 미주기독교방송(KCBN) DTV 채널 63.7 / AM 라디오 740 토요일 7am, 3pm, 11pm
- 뉴욕기독교방송(CBSN, 인터넷라디오) 화요일 7am, 5pm
- 단비TV(타임워너케이블 ch1487) '뉴젠펬시지' 수요일 7pm, 금요일 8am

김도완 목사 Podcast 설교

- 아이폰: 팟캐스트 앱 다운 후 '김도완목사' 검색
-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Castbox 앱 다운 후 '김도완' 검색